

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과 자아 개념 · 정신건강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간호학과
교수 조결자
교수 김윤희
교수 조미영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분석 및 고안
 - 1. 대상자의 가정환경특성
 - 2. 가정환경요인과 자아개념비교
 - 3. 가정환경요인과 정신건강비교
- I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가정이란 한 개인이나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가족구성원들간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의 애정과 신뢰, 위안과 존경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요람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최초의 사회환경이기도 하다.¹⁾ 이러한 환경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은 그들간에 적당한 역할을 나누어 갖고 서로의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 간다. 가족이론의 시조인 Natharn Ackerman(1956)은 가족의 일차적 기능이란 육체적 생존을 안전하게 하는 기능으로 신체적 안녕과 충분한 음식, 의복 그리고 물리적 안전등을 유지해 주는 어느가정이나 공통으로 갖는 고유기능이자 기본기능이 있고 이차적 기능은 인간성을 키우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적 결속을 통해 가족 개개인의 자아개념형성과 성적역할에 대한 자아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및 학습등의 발달에 주요 영향을 미치며 그 가족만의 문화나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²⁾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이란 이들 두가지의 기능을 적절하게 잘 충족시키는 가족이라 정의되겠다. 비기능적 가족이란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조직화가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의식 태도 가치관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서로의 상호관계가 고립되어 있고 위기를 파괴적 기회로 삼으며 부모의 미성숙 부부의 갈등으로 유발되는 지도력의 결여, 정신적 비정상적 문제등이 있는 경우라 하겠다. 또한 의식주와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인 보살핌 사회적 역할수행을 교육을 충분히 제공치 못하는 역기능 가족도 이에 포함된다.^{3,4)}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여성역할의 변화, 가족계획에 의한 출산의 제한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등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며 각 개인의 자아개념형성과 정신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매 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조직화, 휴약화, 폭력화되어가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학생범죄등^{5,6)}은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변화에 의한 인과론적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부학자들은 청소년비행의 요인을 가정내의 가족구성원들간

의 인간관계에서 규명하려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그 사회 문화가치에 접할 수 있는 초기의 기회는 그가 속해있는 최초의 집단인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들의 인격형성이나 행동양상은 가정의 환경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7,8)}고 하였다.

실제로 청소년의 행동들 문제의 심각정도(잠재적문제, 중경도문제, 비행)에 따라 가정환경요인을 비교연구한 결과⁹⁾ 이들 문제행동의 심각성정도에 따라 가정환경요인에서 비교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또한 모범학생군과 문제학생군간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을 비교분석한 결과¹⁰⁾ 이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어느 개인의 심리적 발달은 그의 가족체제에 의해 기인되고 가족은 건강이나 질병의 기본적 근원이 되므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및 가정환경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 역시 청소년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가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들의 자아개념 형성과 정신건강유지에 가정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가정환경이 고려되어야 함도 중요한 사실이다.

최근 간호의 경향도 개인중심의 간호에서 집단 및 가족 중심의 간호로 바뀌어 가면서 간호의 활동범위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건강관리사업도 질병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변화들은 간호원의 역할에서 일차적인 건강관리자로서의 적극적 역할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또한 독자적인 새로운 역할을 감당키 위한 자세의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예방 및 치료대책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들은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은 개인의 자아개념형성과 정신건강유지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한 개인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상태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쳐 모범행동 또는 문제행동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전제하에 청소년들의 자아개념발달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이 무엇인가를 확인코져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1. 청소년의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2.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3. 청소년의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4.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1985년 9월 20일 부터 동년 10월 20일까지 서울시내 주. 야간(주간 4, 야간 4) 남·녀 고등학교 1,2학년에서 1학급씩 16학급을 임의선정하고 그중 891명을 추출하여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주·야간 분포에서 주간 445명(49.9%), 야간 446명(50.1%)였고 연령별 분포에서 17세(36.8%)가 제일 많고 다음이 16세(28.7%), 18세(26.2%)의 순이었으며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 2학년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성별 분포에서 남자 37.0%, 여자 63.0%이고 출생순위 분포에서 중간(38.7%) 막내(30.9%), 첫째(27.0%)의 순이었으며 독자 또는 무남독녀는 매우 적었다.

2. 연구도구

①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조사도구는 연구자들이 문헌연구를 토대로 여러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작성하였다.

가정환경요인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가정환경 요인에는 주거형태,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종교등 20개의 변인이 있고, 심리적 환경, 요인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양육태도) 9개변인,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3개 변인을 합해 모두 12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환경 변인은 4단계평정법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태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태도를 의미한다. 가정환경요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2$ 이었다.

②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인지적자아와 평가적자아의 도구로 구성된다. 인지적자아 측정을 위하여 최(1972)¹¹⁾가 개발한 지각형성 검사도구의 내용중 자기자신을 보는 지각에 대해 우호적—고립적(5문항), 요구됨—배척됨(5문항), 가치있음—가치없음(5문항), 유능—무능(5문항)의 20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특 성	주·야간 구분 수 및 백분율	주		야		합		계	
		N	%	N	%	N	%	N	%
연 령(세):	15	49	81.7	11	18.3	60	100.0	60	6.7
	16	206	80.5	50	19.5	256	100.0	256	28.7
	17	137	41.8	191	58.2	328	100.0	328	36.8
	18	52	22.3	181	77.7	233	100.0	233	26.2
	19	1	7.7	12	92.3	13	100.0	13	1.5
	무 응 답	—	—	—	1	100.0	1	100.0	1
학 년:	1	246	56.6	189	43.4	435	100.0	435	48.8
	2	199	43.6	257	56.4	456	100.0	456	51.2
성 별:	남	232	70.3	98	29.2	330	100.0	330	37.0
	여	213	38.0	348	62.0	561	100.0	561	63.0
출 생 순 위:	첫	138	57.3	103	42.7	241	100.0	241	27.0
	중	151	43.8	194	56.2	345	100.0	345	38.7
	탁	143	52.0	132	48.0	275	100.0	275	30.9
	독 자(무남독녀)	12	41.4	17	58.6	29	100.0	29	3.3
	무 응 답	1	100.0	—	—	1	100.0	1	0.1
	합 계	445	100.0	(49.9)	446	100.0	(50.1)	891	100.0

평가적 자아는 Rosenberg M(1983)¹²⁾의 자아에 대한 존중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self-esteem 측정도구(10문항)를 이용하였다. 자아개념 도구는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여 1점은 절대부정, 5점은 절대긍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48$ 이었다.

③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Derogatis(1973)¹³⁾의 90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이정신 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 도구를 원(1978)¹⁴⁾이 한국판 표준화로 시도했던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를 다시 본연구가 3인이토의 분석하여 50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본검사는 9개 증상척도별로 채점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강박증(5문항), 신체화(4문항), 불안(5문항), 예민성(5문항), 우울증(6문항), 적대감 혹은 공격성(6문항), 공포불안(6문항), 편집증 망상증(6문항) 정신증(6문항)의 척도로서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여 1점은 아주 심하다. 5점은 전혀없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89$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각학교의 담임 및 양호교사에게 설문지를 의뢰·수집하여 총 916매 회수되었으나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것 25부를 제외하고 891부만 최종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백분율, ANOVA, 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Ⅲ. 연구결과 분석 및 고안

1. 대상자의 가정환경특성

1) 가정의 물리적 환경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가정의 물리적 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형태 부모연령, 부모직업, 부모교육, 부모종교, 가족형태, 과거부모와의 별거경험유무, 친부모 생존여부, 경제상태, 부모동거여부를, 알아본바 가정의 물리적 환경특성별 대상자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우선 물리적 가정환경 요인이 되고 있는 자가 소유 유·무 비교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93.4%) 있었으며, 부모의 연령은 40~49세(부: 54.2%, 모: 70.7%) 연령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부모의 직업분포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수위가 판매직(26.8%), 차위가 사무직(25.9%)의 순위를 보였으며 전문직이 2.9%로써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고 무직도 3.8%나 되었다. 어머니의 직업 소유는 24.4%의 빈도를 나타냈는데 수위가 판매직(9.3%), 차위가 근로자(8.6%)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를 분석해본 결과 아버지 교육정도는 수위가 고졸(47.8%), 차위가 전문대졸(27.9%)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수준보다 낮아 고졸(37.6%), 중졸(33.4%)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종교 유·무별 비교에서 부모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부: 52.8%, 모: 74.8%)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으며 가족 형태에 따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가족형태는 대부분이(82.2%), 핵가족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의 별거경험에 따른 비교에서 대상자중 아버지와와 별거경험은 12.9%, 어머니와의 별거경험은 9.2%의 빈도를 보였고 대상자의 부모생존 여부별 비교에서는 94.2%에서만 친부모 생존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경제상태별로 그 내용을 분석해본바 대부분의 대상자가 보통 수준임률(77.2%) 표현했으며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현재 대상자와 부모가 함께 동거상태인 경우는 86.3%였고 나머지 13.7%의 학생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심리적 가정환경 특성

①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12개 변인을 각 항목별로 백분율을 보았을때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아버지의 태도를 수용적이고(매우수용적+수용적: 66.75%) 신뢰적이며(92.28%), 칭찬을 하고(69.53%),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86.93%), 관심을 갖고 있고(86.31%) 부부의 사이는 좋으며(92.61%),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82.90%), 헌신적이며(89.67%)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86.57%)고 답하였다(표 3-1 참조).

이로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부사이」에 관한 변인을 제외하고 신뢰도와 헌신도, 온화도

의 순으로 높은 율은 보여 주었고 수용도와 칭찬도는 낮은 율을 보여 주므로써 아버지는 자녀를 더욱 부드럽게 수용하고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자로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가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고(매우존중+존중: 88.21%) 아버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67.65%)을 보여 주었으나 아버지와 의논을 적게하고 있었다(73.43%).

이(1981)¹⁸⁾는 부모에 대한 태도는 80% 이상이 감사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반응인데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고맙게 느끼고 있으며 부모를 뵈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이 약 50~65% 정도 되나 거의 뵈울 수 없다는 학생도 약 30% 정도나되어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이 적지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의 태도를 수용적이라고 하나 아버지와 의논하는 일이 적고 만족하는 이율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공감대형성이 시급하며, 만족한 가정환경 조성을 통해 개인문제에는 물론 사회문제도 적어지리라 생각된다.

②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9가지변인)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3가지변인)을 분석해 본 결과(표 3-2 참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엄하기보다는 수용적(매우수용적+수용적: 83.74%)이고, 신뢰적(91.24%)이며,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을 주로 하는 편(70.88%)이나 징벌을 하는 경우도 29.21%나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하여 온화한 편(89.61%)이었고, 관심도 많아 자녀를 도와주는 편(90.52%)이었으며, 부부관계도 좋은 편(92.6%)이었다. 자녀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편(86.46%)이나 무시를 하는 경우도 13.55%나 되었으며 자녀에게는 헌신적(93.79%)이고 애정적(91.88%)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다시 순위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높은 것이 헌신이고 다음이 애정, 신뢰, 관심, 의견존중 수용 및 칭찬 순이었다. 따라서 대상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매우 헌신적이고 애정을 쏟고 신뢰를 하는 반면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보편적 특성이라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의견을

〈표 2〉

가정 환경의 물리적 요인 과

특	성	수 및 백분율		자 아 개 념					
		No	%	M±SD	SSB SSW	MSB MSW	F값	df	p값
주거형태	자	832	93.4	3.550±0.527	0.026	0.026	0.090	1	0.764
	가	59	6.6	3.528±0.603	252.516	0.284			
아버지 연령(세)	39세이하	13	1.5	3.525±0.496	0.598 251.944	0.199 0.284	0.768	3 887	0.550
	40~49	483	54.2	3.570±0.538					
	50~59	305	34.2	3.514±0.507					
	60세이상	90	10.1	3.551±0.588					
어머니 연령(세)	39세이하	73	8.2	3.652±0.583	1.357 251.185	0.452 0.283	1.597	3 887	0.188
	40~49	680	70.7	3.550±0.531					
	50~59	161	18.1	3.490±0.461					
	60·이상	27	3.0	3.584±0.761					
아버지 직업	전문직	18	2.9	3.668±0.420	3.896 228.299	0.649 0.279	2.327	6 818	0.031*
	관리직	101	12.2	3.593±0.521					
	사무직	214	25.9	3.609±0.578					
	판매직	221	26.8	3.573±0.503					
	공공 속련직	63	7.6	3.491±0.513					
	근로자	177	21.5	3.472±0.513					
	무직	31	3.8	3.344±0.495					
어머니 직업	전문직	10	1.2	4.026±0.550	3.778 240.186	0.630 0.280	2.249	6 858	0.036*
	관리직	11	1.3	3.463±0.045					
	사무직	29	3.4	3.592±0.524					
	판매직	80	9.3	3.556±0.432					
	공공 속련직	7	0.8	3.381±0.243					
	근로자	74	8.6	3.427±0.548					
	무직	654	75.6	4.009±0.579					
아버지 교육	전문대졸	238	27.9	3.639±0.524	3.672 237.810	0.918 0.281	3.270	4 847	0.011*
	그이상	407	47.8	3.524±0.548					
	고졸	135	15.8	3.475±0.481					
	중졸	66	7.7	3.563±0.519					
	초졸	6	0.7	3.200±0.591					
어머니 교육	전문대졸	70	8.0	3.685±0.530	2.180 240.437	0.545 0.275	1.979	4 873	0.095
	그이상	330	37.6	3.575±0.556					
	고졸	293	33.4	3.511±0.507					
	중졸	162	18.4	3.521±0.489					
	초졸	23	2.6	3.484±0.489					
아버지 종교	무	402	47.2	3.533±0.540	0.179 242.659	0.179 0.286	0.625	1 849	0.429
	유	449	52.8	3.562±0.529					
어머니 종교	무	230	26.0	3.531±0.518	0.092 247.381	0.092 0.280	0.327	1 883	0.567
	유	655	74.0	3.554±0.532					
가족형태	핵가족	732	82.2	3.551±0.520	0.031 252.511	0.031 0.284	0.109	1 889	0.741
	확대가족	159	17.8	3.536±0.585					
과거아버지 와별거경험	유	115	12.9	3.472±0.478	0.753 251.163	0.753 0.283	2.657	1 886	0.104
	무	773	87.1	3.559±0.540					
과거어머니 와별거경험	유	82	9.2	3.487±0.470	0.337 252.142	0.337 0.285	1.184	1 886	0.276
	무	806	90.8	3.555±0.539					
친부모 생존여부	친부친모	839	94.2	3.546±0.534	0.690 251.852	0.345 0.284	1.216	2 888	0.296
	친모친부	11	1.2	3.369±0.320					
	계모(부) 없친부모	41	4.6	3.639±0.536					
경제상태	아주부유함	6	0.7	3.716±1.175	0.879 251.483	0.220 0.284	0.772	4 884	0.543
	부유함	105	11.8	3.621±0.582					
	보통	686	77.2	3.542±0.513					
	어려움	81	9.1	3.510±0.550					
	아주어려움	11	1.2	3.509±0.666					
부모동거 여부	부모동거	768	86.3	3.540±0.533	1.539 250.923	0.513 0.283	1.812	3 886	0.143
	母동거	74	8.3	3.628±0.452					
	父동거	9	1.0	3.277±0.435					
	부모별거	39	4.4	3.643±0.645					

* p<0.05

자 아 개 념 비 교

경		신		진		강	
M±SD	SSB	SSW	MSB	MSW	F 값	df	p 값
3.991±0.574 3.811±0.661	1.777 299.465		1.777 0.337		5.276	1 889	0.021*
3.995±0.574 3.968±0.587 4.014±0.569 3.932±0.540	0.624 259.012		0.208 0.333		0.625	3 887	0.598
4.058±0.532 3.986±0.574 3.946±0.573 3.846±0.729	7.133 294.503		0.378 0.332		1.137	3 888	0.333
4.195±0.470 3.923±0.661 4.027±0.557 4.040±0.545 3.945±0.591 3.890±0.609 3.989±0.579	3.956 276.410		0.659 0.338		1.951	6 818	0.070
4.161±0.512 3.907±0.619 4.045±0.515 3.870±0.542 3.682±0.559 3.818±0.642 4.009±0.579	4.602 287.948		0.767 0.336		2.285	6 858	0.034*
4.009±0.565 4.001±0.589 3.922±0.608 3.935±0.580 3.738±0.360	1.309 288.859		0.327 0.341		0.960	4 847	0.428
4.087±0.606 3.980±0.594 3.958±0.579 3.975±0.557 3.938±0.564	0.992 296.920		0.248 0.340		0.929	4 873	0.572
4.007±0.586 3.966±0.582	0.347 290.066		0.347 0.342		1.016	1 849	0.313
3.997±0.586 3.971±0.580	0.120 299.056		0.120 0.339		0.353	1 883	0.552
3.981±0.591 3.969±0.535	0.018 301.224		0.018 0.339		0.054	1 889	0.815
3.813±0.575 4.002±0.579	3.565 297.063		3.565 0.335		10.634	1 886	0.001**
3.793±0.554 3.996±0.581	3.053 297.335		3.053 0.336		9.097	1 886	0.002**
3.986±0.585 4.120±0.358	1.742 299.500		0.871 0.337		2.538	2 888	0.007*
3.789±0.530 3.823±1.089 3.948±0.567 4.003±0.557 3.883±0.681 4.045±0.594	2.397 293.132		0.599 0.332		1.807	4 884	0.125
4.001±0.568 3.955±0.439 3.537±0.930 3.744±0.769	4.315 291.143		1.438 0.329		4.377	3 886	0.004**

** p < 0.005

〈표 3-1〉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내 용	자		아		개		념			
	N	%	M±SD	S S B S S W	M S B M S W	F값	df	p값		
자 녀 의 대 한 아 버 지 의 태 도	수용도	매우수용적	166	19.72	3.704±0.564	6.236 233.572	2.079 0.279	7.458	3	0.000**
		수용적	396	47.03	3.534±0.514					
		매우수용적	256	30.40	3.459±0.516					
		매우수용적	24	2.85	3.619±0.611					
	신회도	매우신회	342	40.62	3.674±0.510	9.528 230.280	3.176 0.275	11.557	3	0.000**
		신회	435	51.66	3.458±0.531					
		매우신회	59	7.01	3.459±0.530					
		매우신회	6	0.71	3.477±0.729					
	칭찬도	칭찬위	83	9.89	3.745±0.562	8.685 230.252	2.895 0.275	10.511	3	0.000**
		칭찬	501	59.64	3.586±0.522					
		칭찬	233	27.73	3.413±0.486					
		칭찬	23	2.74	3.401±0.766					
	온화도	매우온화	205	24.38	3.755±0.518	16.263 222.645	5.421 0.266	20.380	3	0.000**
		온화	526	62.55	3.521±0.511					
		매우온화	100	11.89	3.305±0.488					
		매우온화	10	1.18	3.200±0.880					
	관심도	매우관심	250	29.73	3.744±0.519	16.578 222.559	5.526 0.266	20.782	3	0.000**
		관심	476	56.59	3.495±0.508					
매우관심		107	12.72	3.335±0.523						
매우관심		8	0.96	3.245±0.740						
부부사이	매우좋은	369	43.98	3.643±0.540	6.399 232.570	2.133 0.279	7.658	3	0.000**	
	좋은	408	48.63	3.482±0.521						
	매우좋은	54	6.44	3.396±0.492						
	매우좋은	8	0.95	3.450±0.525						
아 버 지 의 대 한 자 녀 의 태 도	의견존중도	매우존중	177	21.02	3.753±0.525	16.015 224.862	5.338 0.268	19.895	3	0.000**
		존중	521	61.88	3.583±0.505					
		매우존중	130	15.44	3.353±0.491					
		매우존중	14	1.66	3.042±0.978					
	현신도	매우현신	401	47.63	3.611±0.532	4.751 236.126	1.584 0.282	5.620	3	0.000**
		현신	354	42.04	3.516±0.529					
		매우현신	70	8.31	3.371±0.420					
		매우현신	17	2.02	3.360±0.837					
	애정도	매우많은	393	46.67	3.646±0.507	9.841 230.617	3.280 0.275	11.920	3	0.000**
		많은	336	39.90	3.493±0.536					
		매우많은	100	11.88	3.323±0.496					
		매우많은	13	1.55	3.576±0.857					
의견존중도	매우존중	261	31.03	3.649±0.535	7.475 230.219	8.999 0.275	3	0.000**		
	존중	481	57.19	3.529±0.506						
	매우존중	87	10.34	3.318±0.550						
	매우존중	12	1.44	3.563±0.765						
의논정도	매우많은	51	6.05	3.715±0.609	9.916 230.969	3.305 0.275	12.006	3	0.000**	
	많은	173	20.52	3.686±0.513						
	매우많은	402	47.69	3.548±0.494						
	매우많은	217	25.74	3.393±0.565						
만족도	매우만족	205	24.29	3.756±0.539	15.657 226.254	5.219 0.269	19.376	3	0.000**	
	만족	366	43.36	3.513±0.491						
	매우만족	260	30.81	3.408±0.532						
	매우만족	13	1.54	3.359±0.667						

무응답자제외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 비교

N=891

경		신		건		강	
M±SD	SSB	SSW	MSB	MSW	F 값	df	p 값
4.050±0.569 3.994±0.590 3.958±0.562 3.808±0.573	1.674 279.280		0.558 0.333		1.675	3 838	0.170
4.068±0.565 3.944±0.580 3.885±0.590 3.723±0.590	4.054 276.900		1.351 0.330		4.089	3 838	0.006*
4.038±0.567 4.037±0.565 3.905±0.574 3.624±0.714	6.067 273.951		2.022 0.328		6.171	3 836	0.000**
4.181±0.482 3.976±0.579 3.737±0.591 3.370±0.600	17.846 261.920		5.649 0.313		19.010	3 837	0.000**
4.167±0.512 3.947±0.587 3.786±0.550 3.662±0.895	14.017 266.929		4.672 0.319		14.651	3 837	0.000**
4.082±0.565 3.934±0.580 3.827±0.568 3.687±0.580	6.515 274.013		2.172 0.328		6.618	3 835	0.000**
4.138±0.529 3.977±0.573 3.857±0.517 3.607±0.847	8.293 276.129		2.764 0.330		8.389	3 838	0.000**
4.021±0.566 3.979±0.588 3.906±0.547 3.634±0.793	3.056 281.331		1.019 0.336		3.034	3 838	0.028*
4.041±0.549 3.967±0.607 3.861±0.572 3.810±0.730	3.287 281.083		1.096 0.335		3.266	3 838	0.020*
4.079±0.563 3.982±0.565 3.766±0.626 3.863±0.676	6.697 273.878		2.232 0.327		6.822	3 837	0.000**
4.183±0.591 4.139±0.502 4.003±0.553 3.786±0.630	14.829 269.622		4.943 0.321		15.382	3 839	0.000**
4.168±0.520 4.040±0.547 3.778±0.602 3.847±0.790	19.539 266.118		6.453 0.317		20.369	3 840	0.000**

〈표 3-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

내 용	자 아 개 별									
	N	%	M±SD	S S B S S W	M S B M S W	F 값	df	p 값		
자 녀 에 대 한 어 머 니 의 양 육 태 도	수용도	매우 수용적	214	24.15	3.674±0.540					
	수용성	수용적	528	59.59	3.510±0.515	4.598	1.533	5.538	3	0.000**
		엄밀함	133	15.01	3.490±0.520	243.799	0.277		882	
		매우 엄밀함	11	1.24	3.578±0.752					
	신뢰도	매우 신뢰	361	40.74	3.666±0.520					
		신뢰	448	50.50	3.466±0.507	8.712	2.904	10.686	3	0.000**
		불신	73	8.24	3.458±0.568	239.692	0.272		882	
		매우 불신	4	0.45	3.416±1.116					
	칭찬도	칭찬 위주	101	11.40	3.707±0.524					
		가끔 칭찬	527	59.48	3.592±0.515	9.555	3.185	11.764	3	0.000**
		징벌 위주	232	26.19	3.394±0.498	237.975	0.271		879+3	
			26	2.93	3.409±0.750					
온화도	매우 온화	245	27.65	3.724±0.520						
	온화	549	61.96	3.517±0.507	15.796	5.265	20.019	3	0.000**	
	냉정	82	9.26	3.254±0.475	231.710	0.263		882		
	매우 냉정	10	1.13	3.316±0.861						
관심도	매우 관심	316	35.61	3.707±0.520						
	관심	486	54.85	3.481±0.498	16.056	5.352	20.352	3	0.000**	
	무관심	80	9.02	3.342±0.559	231.675	0.263		882		
	매우 무관심	4	0.45	2.758±0.764						
부부관계	매우 좋음	369	43.98	3.643±0.540						
	좋음	408	48.62	3.482±0.521	6.399	2.133	7.658	3	0.000**	
	나쁨	54	6.44	3.396±0.492	232.570	0.279		835		
	매우 나쁨	8	0.95	3.450±0.525						
의견존중도	매우 존중	206	23.25	3.697±0.515						
	존중	560	63.21	3.542±0.503	11.026	3.675	13.718	3	0.000*	
	무시	110	12.42	3.321±0.535	236.308	0.268		882		
	매우 무시	10	1.13	3.270±0.992						
현신정도	매우 현신	521	58.80	3.606±0.523						
	현신	310	34.99	3.476±0.525	6.384	2.128	7.790	3	0.000**	
	비현신	49	5.53	3.336±0.440	240.949	0.273		882		
	매우 비현신	6	0.68	2.916±0.856						
어 머 니 에 대 한 자 녀 태 도	애정정도	매우 많음	487	54.97	3.626±0.501					
		많음	327	36.91	3.463±0.543	10.501	3.500	13.036	3	0.000**
		적음	65	7.34	3.325±0.497	236.832	0.269		882	
		매우 적음	7	0.79	3.071±0.606					
	의견존중 정도	매우 존중	248	27.99	3.657±0.529					
		존중	543	61.29	3.533±0.496	7.450	2.483	9.131	3	0.000**
		무시	85	9.59	3.321±0.608	239.884	0.272		882	
		매우 무시	10	1.13	3.560±0.820					
	의논정도	매우 많이 함	90	10.16	3.702±0.508					
		많이 함	243	27.43	3.681±0.507	11.451	3.817	14.272	3	0.000**
		적게 함	377	42.55	3.495±0.488	235.883	0.267		882	
		매우 적게 함	176	19.86	3.398±0.589					
만족도	매우 만족	261	29.46	3.716±0.527						
	만족	443	50.00	3.506±0.490	13.093	4.364	16.434	3	0.000**	
	불만족	180	20.32	3.398±0.552	234.240	0.266		882		
	매우 불만족	2	0.23	34.21±1.060						

무응답자제외

개념 및 정신건강 비교

N=891

경	신	전	강
M±SD	SSB SSW	MSB MSW	F 값, df, P 값
4.039±0.588 3.977±0.573 3.925±0.566 3.756±0.621	1.688 293.287	0.563 0.333	1.690, 3, 881, 0.167
4.072±0.558 3.943±0.573 3.790±0.615 3.600±0.801	6.895 288.112	2.298 0.327	7.036, 3, 882, 0.000**
4.012±0.574 4.044±0.554 3.851±0.583 3.754±0.751	7.451 286.634	2.467 0.326	2.566, 3, 879, 0.000**
4.116±0.530 3.973±0.562 3.739±0.639 3.276±0.715	14.272 279.563	4.757 0.317	14.992, 3, 881, 0.000**
4.113±0.552 3.943±0.565 3.735±0.600 3.175±0.768	13.687 281.314	4.562 0.319	14.288, 3, 881, 0.000*
4.082±0.565 3.934±0.580 3.827±0.568 3.687±0.580	6.515 274.013	2.172 0.328	6.618, 3, 835, 0.000**
4.030±0.591 4.012±0.560 3.780±0.537 3.652±0.839	6.584 285.027	2.195 0.323	6.792, 3, 882, 0.000**
4.010±0.569 3.958±0.592 3.862±0.486 3.886±0.629	1.294 290.317	0.431 0.329	1.310, 3, 882, 0.269
4.018±0.543 3.954±0.625 3.869±0.513 3.888±0.525	1.733 289.878	0.578 0.329	1.758, 3, 882, 0.153
4.078±0.577 3.984±0.545 3.720±0.652 3.842±0.637	8.290 283.321	2.763 0.321	8.602, 3, 882, 0.000*
4.116±0.550 4.081±0.528 3.987±0.548 3.774±0.643	11.648 279.962	3.883 0.317	12.232, 3, 882, 0.000*
4.119±0.542 4.003±0.555 3.736±0.541 3.350±0.127	16.280 275.331	5.427 0.312	17.384, 3, 882, 0.000*

존중(매우존중+존중: 89.28%)하고 또한 어머니에 대하여도 비교적 만족(79.46%)은 하나 의논은 별로하지 않는 편(62.31%)이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머니에 대해 만족은 느끼면서도 의논을 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일방적인 무조건적 헌신과 애정은 주나 자녀들과 대화를 잘 나누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라 생각된다.

2. 가정환경요인과 자아개념 비교

1)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자아개념

① 주거형태별 자아개념 비교

주거형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비교해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두변수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거형태별로 자아개념의 정도를 알아본바 자가소유자가 비자가인 경우보다 자아개념이 높았다.

② 부·모년령과 자아개념 비교

부·모년령과 자아개념을 비교해 본 결과 부모년령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참조).

년령별 자아개념의 정도는 아버지 년령이 40~49세군의 자녀에서, 어머니 년령은 39세이하군의 자녀에서 높게 나타났다.

③ 부·모직업별 자아개념 비교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본 바 <표 2>에서와 같이 부모의 직업과 자아개념간에는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아버지 직업: $p < 0.031$, 어머니 직업: $p < 0.036$)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 분포에서 자아개념을 높게 나타낸 경우는 부·모 모두 전문직의 자녀였으며 하위직으로 갈수록 자녀들의 자아개념은 낮았다.

Hurlock(1973)¹⁸⁾의 보고를 보면 부모의 직업이 가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되고 직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이 성격형성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내용에서도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자아의식 확립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하위직종 보다는 상위직종의 부모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④ 부·모 교육별 자아개념 비교

부모의 교육과 자녀의 자아개념을 비교해 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어머니 교육수준과 자아개념간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아버지 교육경도와 자아개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p < 0.011$).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교육별 자녀의 자아개념 정도를 보면 부·모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군의 자녀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의 교육정도는 문제학생의 가정변인이라는 나(1984)¹⁷⁾의 연구와 본연구 결과와는 연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낮은 교육경도가 경제와 직결되어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 결과이거나 부모의 낮은 교육경도가 양육방법에 착오를 가져옴으로써 자녀의 자아의식확립에 영향을 미쳤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⑤ 부·모종교와 자아개념 비교

부모의 종교 유무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참조).

또한 자아개념 확립의 정도에 있어서는 종교를 가진 대상군의 자녀에서 자아개념이 높았다. Mayo(1969)¹⁸⁾는 종교적 신앙심은 인격의 확대와 완숙을 도운다고 하였는데 전(1974)¹⁹⁾의 보고를 보면 부모에게 종교가 없는 학생대상군은 지배성, 남향성, 사려성이 낮았고 하면서 종교의 영향을 시사했는데 이와같은 결과에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부호의 신앙심에 의한 올바른 인생관이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자아의식확립에 영향을 주었음이 아닌가 사료된다.

6) 가족형태와 자아개념 비교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따라 자아개념과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2>와 같이 동거가족 구성과 자아개념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가족형태별 자아개념 형성정도는 핵가족형태의 자녀에서 높게 나타났다.

⑦ 과거 부·모와의 별거경험과 자아개념 비교

과거에 부모와의 별거경험 유·무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비교한 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참조)

부·모와의 별거경험에, 따른 자아개념 확립정도는 부모와 별거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별거경험이 없는 대상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Marlow(1977)²⁰⁾는 자녀가 양친과 별거상태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성격형성에 기초가 되는 애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격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며 Bigner(1979)²¹⁾는 6세에서 13세까지를 근면성과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

였으며 이시기의 부모와의 별거경험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 발달이 억제된다고 하였다.

⑨ 친부·모 생존 여부별 자아개념 비교

친부모 생존 여부에 따른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본바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참조).

친부·모 생존 여부별 자아개념 정도는 제부나 계모 상태인 대상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Landis(1963)²²⁾의 연구를 보면 부모의 사망보다는 부모의 별거와 이혼이 가정에 더 많은 갈등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결혼과정으로 인한 제부나 계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적응능력상의 문제는 자녀들의 자아의식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다.

⑩ 경제상태별 자아개념 비교

경제상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본바 〈표 2〉와 같이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별 자아개념 정도에서는 경제상태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아개념도 비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경제사정에 따른 문화적 영향이 성격형성과 행동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Hurlock(1973)²³⁾의 이론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또한 가정경제가 불안정하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응과 사회전반에 대한 태도에 광범위하게 장애를 준다는 Cutright(1971)²⁴⁾ Kohn(1969)²⁵⁾ Smith(1969)²⁶⁾의 견해와도 연관이 된다고 사료된다.

⑪ 부·모동거 여부와 자아개념 비교

조사대상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자아개념 관계를 비교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거여부에 따른 자아개념 형성정도를 알아본바 아버지하고만 동거하는 경우에서 자아개념의 수치가 가장 낮았다. 본내용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자아의식 확립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1982)²⁷⁾는 3~4세 미만의 어린이가 어머니의 보호를 박탈당하면 어린이의 발육(신체, 정신, 사회적)은 지연되고 정신병질적 또는 무정한 성격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본조사 결과와 부합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이상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속하는 10개항목의 내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변인을 알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특성과 자아개념간의 통계학적 유의도검증을 해본 결과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아버지 교육수준”

이 자녀의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의 심리적환경 요인과 자아개념

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개념 비교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3-1〉과 같이 전체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항목 $p=0.000$).

먼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가 비수용적이기 보다 수용적일 경우에,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징벌을 하기보다 칭찬을 주로 할수록, 그리고 냉정하기보다 온화하게 대할수록, 무관심하기 보다는 관심을 가질수록, 그리고 부부사이가 좋을수록,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기 보다는 존중할수록, 또한 비현실적이기보다 현실적일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정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 자녀의 자아개념 점수가 높으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태도 3개 변인 모두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의 항목에 자녀의 자아개념 점수가 가장 높았다. 즉 아버지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고, 아버지와 의논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점수는 가장 높고 긍정적이었다.

자아개념이나 자존심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냐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어린이가 볼때 가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한 것으로서²⁸⁾ “자신이 천재”라고 믿는 아동은 천재같이 처신하려는 경향이 있고, “바보”라고 믿는 아동은 바보같이 처신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 지도상 중요한 실용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능력자임을 믿게 하여 주어 자아개념이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도와주면 효과적이다.²⁹⁾

아동의 자아개념은 同輩나 교사들이 그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로 부터 받는 대우는 자아개념이 어떠한가를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여건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아동기나 성인기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하는 일에 있어서의 능률을 위하여 필수 조건이다. 또한 강한 불안감은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반응이 中勢의이다.³⁰⁾

여러 조사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들 자신의 자

아발달이 적극적이며 자녀들의 자주적 행동을 보강하며 자녀들의 실패와 문제들을 수용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의 자아발달은 건전하게 되어 적극적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발달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개념 비교
 어머니의 양육태도 9가지 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개념을 비교해 본 결과 표 3-2에서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p=0.0000$).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개념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엄하기보다는 수용적인 경우, 자녀를 불신하기보다는 신뢰할 때,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징벌보다는 칭찬을 주로 하는 경우, 자녀에게 냉정하기보다는 온화하게 대해주는 경우,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보다는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경우,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 존중해 주는 경우, 부부관계가 나쁘기보다는 좋은 경우, 자녀에게 비현신적이기 보다는 현신적인 경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애정이 많은 경우의 자녀들이 자신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우호적이고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매우 가치가 있으며 유능한 사람이라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경우 존경심이 없는 경우에 비해 매사를 어머니와 많이 의논하는 경우가 의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에 비해 자신을 훨씬 우호적이고 가치있으며 유능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p=0.0000$). 결국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민주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이와 정비례하여 자녀의 자아개념도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발견의 시기이자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일어나는 때이다. 특히 이 시기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 성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아개념의 확립³¹⁾으로 자기주체성을 갖게 되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고 인생관, 이

성관, 세계관, 결혼관등 모든 인생살이에 대한 자기나를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하며 자기나를대로의 규관이 서게되어 자기주장과 개성이 강해지고 취미나 기호, 친구등의 선택이 뚜렷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³²⁾ 그러나 이시기에 주파제인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자기가치의 저하와 자신감의 결여를 가져오며 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지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 및 자아기능의 왜곡과 결함을 초래하여 자아에 대한 평가에 상처를 주게되며 이러한 상처들은 소극적이고 퇴행적인 행동(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관계, 신경과민, 자신에 대한 불만)과 결점을 보상키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타인 비난, 가학행위 은갖방법의 주의 집중)을 자아내게 한다.^{33,34)} 또한 내적인 심한 긴장과 갈등으로 청소년은 자기주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여 자기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자아실현의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질서감각이나 방향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표류하게 되고 탈출행태를 취하게 되어 현실도피위한 알콜이나 약물남용, 탈선이나 비행등의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³⁵⁾ 이와 같은 자아개념형성의 장애는 일시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인격장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일생을 통해 자기주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청소년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다.³⁶⁾

김의 2인(1985)³⁷⁾의 연구에 의하면 도범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의 사실들과 본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자녀들의 바람직한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해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건전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확립 즉 가정의 심리적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는 물론 가족전체가 포함되어야 할이 요구된다.

3. 가정환경요인과 정신건강비교

1)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정신건강

㉑ 주거형태별 정신건강 비교

주거형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비교해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주거형태와 자녀의 정신건강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21$). 따라서 가옥소유 여부가 자녀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형태별로 정

신건강의 정도를 알아본바 자가 소유자가 비자가인 경우보다 평점이 높아 자가소유인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자가소유인 경우 안정된 주거환경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줌이 아닌가 생각한다.

② 부모년령과 정신건강 비교

부모년령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비교해본 결과 <표 2>에서 처럼 아버지 어머니 공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년령별 정신건강의 정도를 알아본바 평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아버지 연령이 50~59세군의 자녀에서, 어머니 연령은 39세이하군의 자녀에서였으며 정신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낸 반면에 점수가 가장 낮은 연령은 부·모 모두 60세이상의 자녀였으며 정신건강상태가 나쁨을 나타내었다.

③ 부모직업별 정신건강 비교

부도의 직업에 따라 정신건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어머니의 직업과 자녀의 정신건강과는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34$).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 분포에서 정신건강 평점이 높게 나타난 경우는 전문직의 자녀로써 정신건강상태가 좋았음에 비하여 부·모직업 모두 하위적으로 갈수록 자녀들의 정신건강 평점은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정신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나(1984)³⁸⁾ 등의 연구보고에서 부모의 직업에 따른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 유형을 보면 부친이 전문직 반전문직인 경우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화성 성인모방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부친이 노무직인 경우는 비사회화성 성인모방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부친이 노무직인 경우는 비사회화된 문제행동중 비사회화성 공격행동, 비사회화성 학교규범 회피행동을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직업은 자녀의 부친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가정경제수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상의 내용은 본조사결과와 내용과 부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④ 부모교육별 정신건강 비교

부모교육과 정신건강을 비교해본 결과 부모의 교육 정도와 자녀의 정신건강에 유의성은 없었다(<표 2> 참조).

부모교육에 따른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도를 보면 부모 공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군의 자녀에서 평점이 높아 정신건강 상태가 좋음에 비하여 저학력군으로 갈수록 평점이 낮아져 무학인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양육에 반영되어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할 미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나(1984)³⁹⁾의 연구에 의하면 부친의 교육수준과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친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일수록 사회화성 성인모방 행동이 많았고 중학교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인 경우 비사회화성 학교규범 회피행동, 사회화성 비동경행동, 사회화성 성표출 행동이 많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일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화성 성인모방행동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전(1974)⁴⁰⁾의 연구들 보면 부모의 교육정도가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군에서는 사회성이 낮았고 우울경향이 높았으며 대학정도의 군에서는 우울성이 낮았고 내포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⑤ 부모종교와 정신건강 비교

부모의 종교 유·무와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 유무별 정신건강 정도에 있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 비하여 종교를 안가진 부모의 자녀에서 평점이 낮아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나(1984)⁴¹⁾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천주교, 기독교와 같은 서양종교를 믿는 경우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화성 성인 모방 행동이 많고 불교, 유교와 같은 동양종교를 믿는 경우는 사회화성 잠재공격행동이 많다고 한다. Mayo(1969)⁴²⁾는 종교가 문제행동 유형변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종교를 갖고 있지않은 사람에서 사회화성 잠재공격행동이 빈발한다고 하였다.

⑥ 가족형태와 정신건강 비교

가족형태와 정신건강을 비교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동거가족 구성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별 정신건강 정도는 확대가족에 비하여 핵가족인 자녀에서 평점이 높아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⑦ 과거 부모와의 별거 경험과 정신건강 비교

과거에 부모와의 별거경험 유무와 자녀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부·모 모두 매우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버지 : $p < 0.001$, 어머니 : $p < 0.002$).

따라서 과거 부모와의 별거경험 유무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도는 부모와 별거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별거경험이 없는 대상군에서 평점이 높아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깊은 관심과 올바른 훈육이 계속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Pederson(1966)⁴³⁾은 부친과의 별거경험이 청소년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큰장애를 초래하고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Jenkins(1969)⁴⁴⁾는 조기에 부모와의 원만한 정서적 유대가 생성된후에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는 사회화 과정에 커다란 장애는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부모의 사망여부 보다는 부모와의 과거 또는 현재에서의 별거경험여부와 별거동기가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변별에 큰영향을 끼침을 생각할 수 있겠다.

⑧ 친부모 생존여부별 정신건강 비교

조사대상자의 친부모 생존여부와 정신건강을 비교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매우 유의한 차이($p < 0.00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부모 생존 여부가 자녀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부모 생존 여부별 정신건강정도는 계부나 계모상태인 대상군에서 평점이 낮아 정신건강상태가 친부모 생존대상군에 비해 나쁜 경향을 나타내어 결손가정의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여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살 미만의 어린이가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을 박탈당했을 때 심신발육장애와 질병이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1982)⁴⁵⁾의 보고에서는 전쟁신경증 환자의 30~48%가 16세 이전에 파탄된 가정에서 자랐고 200명의 자살기도자중 58%가 파탄된 가정 출신이었고 정신분열증의 34~40%, 조울증의 17~34%에서 부모의 박탈이 보고되었다.

⑨ 경제 상태별 정신건강 비교

경제상태와 정신건강을 비교한 결과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경제상태별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상태 정도가 보통인 경우와 아주 어려운 상태일 때 평점이 높아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낸 반면에 경제상태가

아주 부유한 대상군의 평점은 낮아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경향을 나타내었다.

⑩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정신건강 비교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정신건강을 비교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매우 유의성이 있는($p < 0.004$) 결과를 보여 주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자녀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별 정신건강 정도는 양친모두가 동거상태일때 평점이 높아서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했으며 정신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는 아버지하고만 동거하는 자녀인 경우이었다.

본결과에서 불행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나(1984)⁴⁶⁾의 연구보고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부모의 사망보다는 부모와의 과거 또는 현재에서의 별거경험 여부와 별거 동기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유형변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속하는 15개 항목의 내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변인을 알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특성과 정신건강 상태와의 통계학적 유의도 검증을 해본결과 “주거형태”, “어머니 직업”, “과거 부모와의 별거경험” “친부모 생존 여부”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의 심리적환경 요인과 정신건강

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정신건강 비교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3-1>과 같이 「수용도」를 제외한 11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항목 $p < 0.05$).

먼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자녀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보다는 높을 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징벌하기보다 칭찬하고 온화하며, 관심을 많이 갖을수록, 부부관계는 좋고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기 보다는 존중할수록, 자녀를 위해 비헌신적이기 보다는 헌신적이며 애정이 많은 수록 정신건강 상태의 점수는 높아서 건전한 정신건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개의 변인마다 가장 바람직한 항목에서 정신건강 점수는 4.0 이상으로서 정신적인 문제풀 호소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은 특기할 사항이었다.

이로서 바람직한 가정환경 특히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는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입증해 주었다.

자녀가 어떻게 양육·교육되었는가,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했는가는 자녀의 성격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⁴⁷⁾ 양친사이의 대립관계가 생기면 자녀가 받는 영향은 매우 크다. 양친의 불화가 가져오는 가정내의 긴장상태는 자녀의 정서 불안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머니는 파보호 하기 쉽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냉담해지기 쉽다. 그래서 부자관계는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 친근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돌연 난폭해 지는 경우도 있다.⁴⁸⁾

그리고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의 상황이 직접 간접으로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내에서의 다툼, 부모의 애정결핍, 경제적 불안이나 학교에 있어서는 교사의 無理解, 친구들과의 相類 등에 의해 어린이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 문제는 어떤 때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되어 나타나고, 어떤 때는 퇴행적 행동으로 된다. 또는 정신긴장이나 불안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⁴⁹⁾

또한 부친의 특징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하여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자녀가 불량행위 또는 비행이 많고⁵⁰⁾ 비행청소년일수록 정신증상을 많이 호소한다.⁵¹⁾

청소년의 특징적 문제행동 유형에 관한 분류중 과잉억제형에 속하는 분류기준에는 신경과민, 우울증, 육체적 고통, 신경증적 질환이 있고 신경증적 비행에는 심각한 불안과 강렬한 불안정감, 그리고 심한 죄책감 때문에 심적 갈등해소를 위해 범법행위를 하고, 정신병적 비행형(psychopathic delinquency)에는 잔인한 부모 가정교육이 엄격하거나 신경결핍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⁵²⁾

그러므로 비행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아버지는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적이며 서로가 신뢰하고 관심을 갖으며 서로를 아끼는 가정환경이 중요하다.

②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정신건강 비교
어머니의 양육태도 9가지 변인에 따라 자녀의 정신건강상태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표 3-2>에서와 같이 3가지 변인을 제외한 6가지 변인(신뢰정도, 칭찬정도, 온화한 정도, 관심정도, 부부관계, 의견존중정도)에서 유의한 차이($p=0.0000$)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보다는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징벌을 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항상 도와 주는 경우, 부부관계는 나쁜 경우보다는 좋은 경우에,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주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훨씬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신건강상태는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본 결과 3개의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p=0.0000$)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태도 여하는 자녀의 정신건강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기 보다는 존중하는 경우, 어머니와 의논을 적게하기 보다는 많이하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하여 불만족하기보다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정신건강상태가 더욱 건전한 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칭찬을 위주로 하며 온화하고 관심이 많고 부부관계가 좋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줄수록 그리고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머니와 의견교환을 많이 하며 어머니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자녀들의 정신건강상태가 훨씬 좋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개념의 결과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민주적이고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모자관계가 바람직할수록 자녀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잘 유지 및 증진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변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증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수용성, 현실정도, 애정정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추론 및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H.A. Sullivan은 사람의 성격은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어린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였다.⁵³⁾ 이러한 대인관계는 사랑, 미움, 괴로움, 즐거움, 시기 및 질투, 부러움, 외로움, 슬픔, 창피, 죄, 두려움, 기쁨 등의 감정의 원천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장래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린시절의 모자관계라 볼 수 있다. 지나친 과잉보호나 거절(또는 포기)은 청소년이 의젓하고 믿음성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미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정신병리를 싹틔게 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격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어머니의 태도는 애정과 수용, 칭찬이며 지적 요인이 되는 것은 공격심, 적대감, 가혹증적이고 의존적인 태도이다.⁵⁴⁾

청소년비행이나 반사회적 인격내지 무감동 정신병질 등은 모성결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영아기에 경

험한 모성박탈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장기적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나 비행이나 반사회적 인격이 단순한 모성결핍에서 온다고 볼 수만은 없고 가정불화로 인한 부모의 공격성, 무력행사, 잦은 싸움에서 비롯하는 수도 있다. 무감동정진병질은 어렸을 때 아이를 보살피는 어른이 자주 바뀌어 아이가 한번도 애착을 느껴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즉 애착형성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청소년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감이 결여되며 타인과는 어떠한 정서적 관계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 살인이나 강도행위까지도 죄책감없이 하게 된다.⁵⁵⁾

그리고 역학적 통계에 의한 정신과적 장애는 15~20%의 빈도를 보이고 소아와 성인의 중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적 문제는 이미 시작한 소아기의 문제점들이 계속되든지 또는 변형된 상태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 즉 불안이나 우울이 소아기에 시작하여 그 당시 해소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불안은 청소년기와 문제점과 혼합되어 복잡한 상태로 변형될 수 있다.⁵⁶⁾

위의 연구결과에서 자녀의 정신건강상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매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적 측면에서 부모들이 올바르게 건전하며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갖기 위한 사회계몽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문제상담과 가족상담을 위한 전문가관과 시설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문제의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부모의 정서적 상태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부모와 상담해 줄 수 있으며 적절한 보조적 환경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수가 요구된다.

③ 부모-자녀간의 관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즉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반대로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깊은 상관관계를 보여서($r=0.858$)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도 좋았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머니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도 좋았으나($r=0.743$) 모자관계 보다는 부자관계의 점수가 더 높았다.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적은 상관관을 보였다($r=0.321$) 자녀를 대

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역시 적은 상관관을 보였으나($r=0.530$) 자녀가 어머니에 의한 영향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에게 의한 영향력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자녀간의 상관관계 (r값)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자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0.858	0.321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0.530	0.743

부모와 자녀간의 태도는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할때 그들간에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수 있고 자녀가 갖는 정신적인 태도는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수 있다.

V. 결 론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여 자기나름대로의 인생관 이성관 직업관 세계관 인생의 목표등에 관한 주관이 서게 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자아의식의 확립은 정신건강유지와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아개념은 인간이 생후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가정에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현재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우선 가정환경의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개념형성과 정신건강유지와 관계가 있는 가정환경변인은 어떠한 것들인가를 밝혀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1985년 9월 20일 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시내 일부 남·녀고등학교(주간 4, 야간 4) 학생 89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였다. 연구의 도구로는 ① 가정환경변인을 측정키위해 연구자 3인이 문헌연구를 기초로 제작하고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만든 질문 32개 문항(chronbach's $\alpha=0.912$)과 ② 자아개념을 측정키위한 질문 30문항(인지적 자아 20문항, 평가적 자아 10문항: chronbach's $\alpha=0.884$), ③ 정신건강측정키 위한 질문 50개문항(SCL 90; chronbach's $\alpha \pm 0.949$) 도합 112개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백분율, Pearson r

Anova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간간 분포에서 주간(49.9%), 야간(50.1%)이 거의 비슷하였고, 연령은 17세군(36.8%)이 가장 많았고 1,2학년 분포는 비슷하였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63.0%)이 더 많았고, 출생순위는 중간(38.7%), 막내(30.9%), 첫째, 독자의 순이었다.

2. 대상자의 가정환경특성

1) 가정의 물리적 환경특성

대상자의 대다수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부·모의 연령이 40~49세군이었으며, 부·모직업은 무직의 어머니군을 제외하고 판매직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고졸자가 가장 많았고 양친이 모두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과거에 부모와 별거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친부·모가 생존해 있고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경제정도는 보통이었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 특성

부·모는 자녀를 대부분 긍정적인면으로 대하는데 특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수용적이고 온화하며 관심이 많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현실적이고 애정이 많다고 하였으나 자녀를 신뢰하고 칭찬하는 정도는 부·모가 모두 비슷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의견을 비슷한 정도로 존중하나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논하는 일이 더 많았다.

3. 가정환경요인과 자아개념 비교

1)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른 자아개념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른 자아개념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부: $p < 0.031$, 모: $p < 0.036$)과 아버지의 교육수준($p < 0.011$)임이 밝혀졌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에 따른 자아개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각요인별 부: $p = 0.0000$, 모: $p = 0.0000$).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수용도, 신뢰도, 칭찬도,

온화도, 관심도, 부부사이, 의견존중도, 헌신도, 애정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의견존중도, 의논정도, 만족도)이 긍정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자녀의 자아개념도 긍정적이었다.

4. 가정환경요인과 정신건강비교

1)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정신건강

가정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른 정신건강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변인은 주거형태($p < 0.021$), 어머니의 직업($p < 0.034$), 과거 부·모와의 별거경험유무(부: $p < 0.001$, 모: $p < 0.002$), 친부모생존여부($p < 0.007$), 부와 모의 동거여부($p < 0.004$)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정신건강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중 신뢰도, 칭찬도, 온화도, 관심도, 부부사이, 의견존중도는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자녀의 정신건강도 건전하였으며,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헌신도, 애정도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의견존중도, 의논정도,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다.

3) 부모—자녀 관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녀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좋았으나(부—자관계 $r = 0.858$, 모—자관계 $r = 0.743$). 부—자관계가 모—자관계보다 더 좋았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상관관계가 적었고($r = 0.321$), 역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상관관계도 적었다($r = 0.530$).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의 자아개념형성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환경 즉 부모의 양육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위해 가족 및 가족체계의 역동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며 또한 다양한 이론적 틀을 이용하면서 가족체계의 맥락에서 대상자들을 사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가족(임종가족, 단성질원가족, 노인이 있는 가족, 정서장애자가족, 약물 및 알콜중독자가족등)을 위한 간호조정시 개인을 포함한 가족상담과 치료를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가족치료연구자로서 치료자로서 공

동치료자로서의 간호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역할을 개발해야 됨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Jean R. Miller, Ellen H. Janosik(1980); *Family focused Care*, New York St Rouis McGrow Hill Book Comp. p. 5.
- 2) Judith Haber(1980), *Comprehensive Psychiatric Nursing*(2nd ed.), p. 330.
- 3) 이근후(1985); 문제가족 I.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p. IV-4.
- 4) Pasquali, Arnold, Debasio Alesi(1985), *Mental health*(2nd ed.), St Rouis: The C.V. Mosby pp. 317~318.
- 5) 민병근(1981),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정신의학적 고찰", 법무부 자문위원회논문집 제 5집, p. 127.
- 6)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82), 청소년 백서
- 7) 장병립(1971),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p. 194.
- 8) 김경동(1978), 현대사회학, 서울, pp. 221~253.
- 9) 김윤희·조결자·조미영(1985),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요인 비교분석", 경희간호연구지 제 9권, pp. 145~146.
- 10) 김윤희·조결자·조미영(1985),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 정신건강 비교분석", 대한간호 제 25권 제 1호, pp. 79~80.
- 11) 최정훈(1972); 지적향성검사 예비검사형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논문총 9권 pp. 67~85.
- 12) Rosenberg, M.; 심형욱(1983); 폐결핵 환자의 자아개념과 건강신념이 치료적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0.
- 13) Derogatis(1973); 원호택(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C-90) 한국판 표준화연구II. 한양대학교 논문집 제12집, pp. 457~474.
- 14) 원호택(1978); 상계서 p. 457.
- 15) 이기룡(1981); "청소년의 실증적 고찰", 복원대논문집, 4집, p. 321.
- 16) Hurlock E.B.(1973);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McGrow Hill, pp. 296~319.
- 17) 나철, 이길홍, 민병근(1984); 학생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의대지 9권 4호 p. 578.
- 18) Mayo, C.C., Purpear H.B. and Richey H.G.(1969); MMPI Correlates of religiousness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J.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49, pp. 381~385.
- 19) 전영자(1974); 비행소년의 성격특성과 개인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11권 2호 p. 211.
- 20) Marlow, William(1977); *The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p. 617.
- 21) Bigner Jerry J.(1979); *Parent and Child relation*, MacMillan, pp. 78~79.
- 22) Landis J.T.(1963); Social Correlates of divorce and nondivorce among the unhappy married marriage *Fam. Living* 25, pp. 178~180.
- 23) Hurlock E.B.(1973); 전계서 p. 319.
- 24) Cutright, P. (1971); Income and Family events,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pp. 291~306.
- 25) Kahn, M.L.(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II*, Dorsey Press, p. 262.
- 26) Smith T.E.(1969); Social class and attitude toward fatheres, *Social, Soc. Res.* 53, pp. 217~226.
- 27) 이정균(1982);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p. 511.
- 28) 김승국의 4인(1972); 간호심리학, 한국응용심리학 협회, pp. 23~24.
- 29) 이기돈(1979); 아동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p. 258.
- 30) 이기돈(1979); 상계서, p. 259.
- 31) 유숙자의 5인(1979);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pp. 209~210.
- 32) 김소야자(1985);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성장발달과 특성", 월간간호, 9권 1호, pp. 51~52.
- 33) 안제정(1982); 청소년의 의식과 비행, 한국기독교 청소년선도회, p. 53.
- 34) 안덕자(1981); "개방과 금지의 사회적 갈등", 청소년 통권 제16호, p. 16.
- 35) 전광문(1981); 청소년 범죄의 심리학적 이해", 청소년 통권 제15호, p. 81.
- 36) 이정균(1982); 전계서, 동면.

- 37) 김윤희·조결자·조미영(1985);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자아개념. 정신건강 비교분석", 대한간호, 25권 1호, p. 60.
- 38) 나철, 이길홍, 민병근(1984); 전게서, pp. 574~576.
- 39) 나철, 이길홍, 민병근(1984); 상게서, p. 576.
- 40) 전영자(1974); 전게서, p. 211.
- 41) 나철, 이길홍; 민병근(1984); 전게서, p. 577.
- 42) Mayo(1969); 전게서, p. 384.
- 43) Pederson, F.A.(1966);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absence and emotional disturbance in male military dependents. *Merril 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12, pp. 321~331.
- 44) Jenkins R.L.(1969); Classification of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m. J. of Psychiatry*, 125, p. 1032.
- 45) 이정균(1982); 전게서, p. 511.
- 46) 나철(1984); 전게서, p. 577.
- 47) 平井信義(1975); 子供の精神衛生, 第26刷, 東京, 同文書院, p. 268.
- 48) 平井信義(1975); 상게서, p. 300.
- 49) 平井信義(1975); 상게서, p. 6.
- 50) 平井信義(1975); 상게서, p. 131.
- 51) 김윤희, 조절자, 조미영(1985); 전게서, pp. 67~68.
- 52) 민병근(1981);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정신의학적 고찰", 법무부 차문위원회 논문집, 5집, p. 127.
- 53) 이정균(1982); 전게서, p. 69.
- 54) 이정균(1982); 상게서, p. 496.
- 55) 이정균(1982); 상게서, p. 81.
- 56) 이정균(1982); 상게서, p. 511.

<Abstract>

The study on comparison home environmental elements with self-conception &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K.J. Cho, Y.H. Kim, M.Y. Cho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

In this study I made an effort to find out what the home environmental elements were in relation with establishing the self conception of the youth and keeping with their mental health,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counseling, and cures of adolescent problems. Above all, the cause of adolescent problem was caught in the aspects of home environment, because the self conception of a man is formed by means of experiences in which he have firstly through his family after born.

From sep. 10, 1985 to sep. 30, the object of study which we took is some boy's and girl's high school students, 891 persons, in Seoul. (Day classes 4, Nightclasses 4). The apparatuses of study are a measuring apparatus of self conception (self perception 20 items, self esteem 10 items, chronbach's $\alpha=0.8848$), a measuring apparatus of mental symptom (SCL 90, 50 items, chronbach's $\alpha=0.9489$), And we used the 32 item's apparatus (chronbach's $\alpha=0.912$) corrected, repaired several times and made out by 3 investigators through the study of references in the factors of family environment. The gathered materials were took statistics using SPS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study and we came to conclusions like these;

1. General property of Day and Night class, Dayclass(49.9%) and Night class(50.1%) are similar, and in the ditribution of the age, the group of 17 years old (36.8%) is extremely much, and the distribution of 1st and 2nd year is similar.

The number of girls (63.0%) is much more than boys. The order of birth is ① the middle (38.7%), ② the lastborn (30.9%), ③ the eldest (27.0%).

2. Comparison of home environmental elements to self conception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self conception in the youth. Especially, I comparatived and analysed the conception of the self on the basis of home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The result indicated: first that physical environmental elements were the adolescent parent's occupation (father; $p>0.031$, mother; $p<0.036$) and educational levels of his father ($p<0.011$), secondary that in a child's psychological environment his self conception was affected by his parent's attitude in bringing children up (each element: father $p<0.000$, mother $p<0.000$): that

is to say that, children's self conception was more affirmative when parent's attitude on how to bring their children up (degrees of acceptance, reliance, applause, gentleness, concern, agreement of a couple, respect of children's opinion, selfsarfice, and affec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ward their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them up(degrees respect of parent's opinion, consult, and satisfaction) was greatly affirmative and democratic.

3. Comparison of home environmental elements and mental health.

1) physical environment of a home and mental health

I comparatived and analysed the mental health through physical elements of the home environment. It turned out that physical environment of a home affected an adolescent's mental heallh, then that elements changing the environment were as follows: housing types ($p < 0.021$), mother's occupation ($p < 0.034$), and whether or not they had lived separately from their parents in the past(father: $p < 0.001$, mother: $p < 0.002$), or are now living with their blood parents ($p < 0.007$), or living together ($p < 0.004$).

2)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a home and mental health

In the parent's attitudes of bringing their children up children's mental health was affected by their parent's degrees of reliance, applause, gentleness, concern, agreement of a couple and respect of the children's opinion. Therefore the more the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was affirmative and democratic, the sounder was the children's mental health.

3) parent's relation with their children parent's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were proportional to their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ir parent (paternal children relation: $r = 0.858$, maternal children relation: $r = 0.743$). I found out that the father and son formed a closer connection than the mother and son.

The father's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ir mother were less relative ($r = 0.321$), and conversely the mother's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ir father also being less.